

##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

이 윤 경\* · 김 민 자<sup>+</sup>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sup>+</sup>

### Non-Euclidean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Hyperspace in Costume

Yoon-Kyung Lee\* · Min-Ja Kim<sup>+</sup>

Research Institute of Home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Home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0. 2. 9, 심사(수정)일: 2010. 3. 25, 게재확정일: 2010. 4. 23)

#### ABSTRACT

In this study, hyperspace is a result of imagination created by means of facts and fiction, represents a transfer to determination and indetermination, and means an extension to an open form. In other words, hyperspace is a high dimensional space expanded to imaginat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viewpoint on facts in this dimension and fiction. When the 2D plane surface or 3D symmetry is destroyed, or when the frame is twisted or entangled, the non-Euclidean geometry is created eventually. And when the twisting leads to transmutat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form reaches the extreme; this in turn became the twisting like Mbius band. Likewise, the non-Euclidean geometry is co-related to the asymmetry of the Higgs mechanism. When the 'destruction of symmetry' is considered, symmetric theory and asymmetric world can be connected. The asymmetry in turn can maintain balance by arranging the uneven weights at different distances from the shaft. Moreover, at this the concept of the upper, lower, left and right, which was included in the original form, may be crumbled down. The destruction of the symmetry is essential in order to present forecast that coincides with the phenomenon of the real world. Non-Euclidean geometry characteristic is expressed by asymmetry, twists, and deconstruction and it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is ambiguity. The boundary between the front, back, upper, lower, inner and outer is unclear, and it is difficult and vague to pinpoint specific location. The design that does not clearly define or determine the direction of wearing costume is indeed the non-oriented design that can be worn without getting restricted by specific direction such as front and back. Non-Euclidean geometry characteristic of hyperspace have been applied to create new shapes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substance from traditional clothing of the eastern world to modern fashion. The way of thinking in the 'hyperspace' that used to be expressed in the costumes of the east and the west in the past became the forum for unlimited creation.

Key words: asymmetry(비대칭), deconstruction(탈구조), hyperspace(초공간),  
non-Euclidean geometry(비유클리드기하학), space(공간), twist(꼬임)

## I. 서론

세계 컬렉션을 통해 에서 동양의 복식미를 담아내고자 하는 세계 디자이너들의 노력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은 동양의 전통 복식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동양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동양 특히, 중국과 한국의 사유 방식과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복식(의상)이라고 한 김상일(1999)의 말처럼 인간의 사유 방식과 복식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sup>1)</sup> 이는 각국의 전통 복식이 만들어지는 그 구성 방식에 그 나라의 생활양식인 문화적 현상과 철학적 관념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양 특히 한국의 사유 방식에는 비정향적(非定向的)이고 차원을 넘나드는 초공간(hyperspace, 超空間)의 특성을 내포한다. 초공간은 일반적으로 4차원이나 그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 또는 빛 보다 빠른 속도로 시간 여행이 가능한 허구의 공간으로 정의된다.<sup>2)</sup> 초공간의 특성은 이러한 특성은 비유클리드기하학과 같이 시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선형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서양의 사유 형태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 복식에 나타난 초공간의 특성을 김민자(2009)는 열린 미라 하였고 이는 몸과 복식 그리고 공간 사이의 관계에서 착장 방법에 따른 자유분방한 미로 설명하였다.<sup>3)</sup>

초공간 즉 현존하는 공간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 무한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동양의 사유의 특질은 내면성(심층성)으로, 서양 사유의 특질은 외면성(표층성)으로 표현된다.<sup>4)</sup> 이러한 특성은 동·서양의 복식의 표현된 방식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동·서양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에 패션은 기존의 형을 거부하고 이를 변형하거나 해체하려는 탈구조주의,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적용된 다기능적 디자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상복으로 까지 그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변화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디자인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초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을 복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복식과 초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개념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미적 가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동·서양 사상을 도입하여 개념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 복식에서는 실제 어떤 조형적 방법으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개념이 표현되고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사례를 분석하였다.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조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과 복식사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 연구와 복식사 관련 서적과 collection 잡지, 패션쇼 사이트에서 얻은 이미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초공간의 개념

서양의 관념적 사유가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있다면 동양은 시각적 인식에 앞서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하는 전감각적 인식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 선형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추구한다. 초공간은 자연의 보편적 질서인 물리적 원리로 접근되는 실체를 통한 고차원의 개념을 포함한다. 초공간은 가시적인 실체(實體)가 놓여진 공간인 실(實)과 여기에서 벗어난 비가시적인 허(虛)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초공간은 실체와 허구가 동원되어 만들어진 상상의 결과이며 명확함에서 불확정함으로의 전이이고 형태의 열린형(open form)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곧, 현차원에서 실체(fact)를 보는 시각에 허구(fiction)가 결합하여 상상(imagination)으로 확장된 고차원의 공간이다.<sup>5)</sup> 우리의 직관은 명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직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 허(虛)의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고차원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초공간 개념은 지각이 가능한 영역인 '실(實)'과 지각하기 어려운 영역인 '허(虛)'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sup>6)</sup> 실과 허의 관계에서 초공간은 실체 안에서의 관계, 실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실과 허의 끊임없는 소통의 관계 마지막으로 실과 허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실과 허의 통합관계로 살펴 볼 수 있다(표 1)<sup>7)</sup>. 이러한 실과 허의 관계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실체 안에서 관계로 어떤 실체의 형 안에서 나타난 초공간의 특성이다.

## 2.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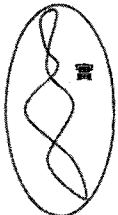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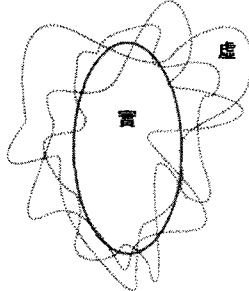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은 유클리드기하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비유클리드기하학의 발견은 물리적 공간이 갑자기 다른 기하학에 의해 서술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이것은 비유클리드기하학의 초기 연구자들에게 혼란스러운 것이었다.<sup>8)</sup> 비유클리드기하라는 존재의 발견은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클리드기하로는 설명되지 않은 평행선의 발견에서 출발한다. 하나의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단 한 개밖에 그을 수 없다는 통설에 평행선을 두 개 그을 수 있

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에서 출발했다. 두번의 길이와 그 사이 각이 같도록 잘게 쪼갠 삼각형을 이어붙이며 무한한 각을 이룬 도형이 형성되고 결국 원의 형태를 갖게 된다. 좁은 장소에서만 보고 있으면 유클리드적인 쪽이 자연스럽지만 눈을 무한한 먼 곳까지 돌려서 넓게 보면 유클리드적이지 않은, 즉 비유클리드적인 쪽이 오히려 자연스럽다.<sup>9)</sup> 이러한 비유클리드적 특성은 초공간 개념인 지각이 가능한 영역인 '실(實)'과 지각하기 어려운 영역인 '허(虛)'의 관계로 볼 때 실체 안에서의 관계로 설명된다.

초공간 개념에서 비유클리드기하학은 희스메키니즘이 가진 자발적인 대칭성의 파괴와 같은 실체 내에서의 변형이다. 그 첫 번째 시각적 조형성은 비대칭성이다. 비유클리드기하학은 희스메키니즘이 갖는 비대칭성과 연관성을 갖는다. 대칭적인 이론과 비대칭적인 세계 사이의 연결은 '대칭성 깨짐'을 고려하는 것에 있다. 비대칭성은 축으로부터 서로 다른 거리에서 불균등한 무게들을 배열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처음의 형이 가지고 있던 상하좌우의 개념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칭성 깨짐은 현실 세계의 현상과 일치하는 예측을 내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차원 이하의 저차원의 기하학의 변형에서의 출발

〈표 1〉 실과 허의 관계로 본 초공간

1. 실체 안에서의 관계	2. 실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실과 허의 관계	3. 실과 허가 통합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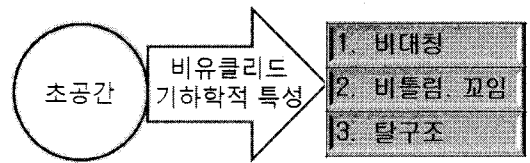
實 : —————  
(눈에 보이는 것)  
虛 : - - - - -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은 비틀림과 이로 인한 대칭성의 깨짐이 극대화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지는 꼬임의 과정으로 가능하다. 2차원의 평면이나 3차원의 입체의 대칭성이 파괴되거나 형이 비틀어질 때 만들어진 비유클리드기하학이다. 이러한 비틀림에 의해 기존의 형이 변형되고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결과적으로 피비우스 띠와 같은 꼬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후, 좌우, 상하의 구별이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출발점과 끝나는 점이 명확한 시원적인 세상이다. 반면 피비우스의 띠나 클라인병, 사영평면 등은 비시원적이다. 이는 앞뒤, 안과 겉의 구별이 없는 비유클리드기하학의 조형물이다. 이러한 비유클리드기하학에 기초한 조형물의 탄생은 '꼬임'에 의해서이다.<sup>10)</sup> 꼬임의 조형성은 유클리드기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이한 형을 갖는다. 이러한 꼬임의 조형적 특성은 유희문화의 '응축'과 '풀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정의 발산 과정과도 유사하다. 정의 발산이 순조로우면 일이 풀려 성취를 얻게 되고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내부에 응어리가 맺어 '한(限)'이 맺히게 된다.<sup>11)</sup> 일이 꼬임으로써 순조롭게 발산되지 못한 정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게 되므로 이는 또 다른 비틀림의 작용에 의해 다시 풀리게 된다.

정상적인(우리에게 친숙한) 형의 비틀림은 기존의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로는 기존의 형에서 벗어난 뒤틀림은 역겨움이나 불쾌감으로 까지 여겨진다. 그러나 비틀림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꼬임이 오히려 감상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유클리드의 조형성은 전후, 좌우, 상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비시원적인 세계이다. 이는 데리다의 '확정 불가능성'의 논리에서도 나타난다. '확정 불가능성'의 논리 역시 차연의 완결성을 지향하지 않은 논리와 같은 맥락을 갖는다. 확정 불가능성의 영역은 해석의 자유와 차연, 비동일성의 존재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데리다에게 있어 확정 불가능성은 완결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확정 불가능성의 영역은 해석의 자유와 차연, 비동일성의 존재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해석의 자유와 차연, 비동일성의 존재에 의해서 가능하다.<sup>12)</sup> 즉 차연은 '상이한 규정

성'이며 완결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존의 정형에서 벗어난 탈구조적인 형이 등장하게 된다. 서양에서 모더니즘이 사각형의 분별적이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원시적인 것과 유사한 양상을 띠며, 마치 클라인병이나 사영평면이 대칭적인 분별을 포함하여 초월한 비시원적인 형태를 갖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정형적 사유를 초월하는 비시원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가시적인 조형성과 무형의 사유 체계 사이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관계항을 보여준다. 또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비대칭, 비틀림과 꼬임 그리고 탈구조의 가시적인 조형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sup>13)</sup>.



〈그림 1〉 초공간 개념에서 본 비유클리드기하학의 조형적 특성

### Ⅲ. 복식에서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

#### 1. 몸과 복식에 대한 초공간 개념

복식에서의 초공간은 몸과 복식과 공간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몸과 복식은 실체이며 공간은 허(虛)이다.<sup>14)</sup> 실체인 몸과 복식은 가시적인 형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공간과의 합일을 시도한다. 곧 복식은 몸과 공간 사이를 오가면서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복식에서 초공간은 인체의 비재현성을 의미한다. 몸과 복식의 비재현성은 인체의 형에서 벗어난 추상적 표현이며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에서 인체는 가시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정신이다. 따라서 복식에서 초공간은 열린형이며 실체와 상상이 결합된 공간이자 몸과 정신이 결합된 공간이다. 이러한 초공간의 특성은 동양의 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양의 전통 복식은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적이며 비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주관적인 착용 방식에 따라 그

형이 결정된다. 동양에서 인체는 정신사적인 측면의 연장으로 우주의 일부분이면서 곧 우주이다. 이러한 동양의 사유 방식은 인체에 입혀지는 복식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어왔다. 따라서 동양의 전통 복식은 몸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몸을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았으며 이는 계단 방식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인체를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는 것은 인체를 실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무형의 정신이 들어 있는 총체적인 합일체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는 인체에 입혀지는 복식이 인체와 함께 동화되어 유형의 인체뿐만 아니라 내부의 무형의 정신까지 담아내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허(虛)에서 출발한 모호함과 숨음의 사상이 내포된 동양의 미학은 동양의 복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형태를 형성한다.

동양의 복식과 달리 서양에서는 시대가 거듭 될수록 구조적인 형태로 인체에 대한 이상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복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양의 사유에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를 시도한다. 몸은 사물과 인간, 몸의 내부와 외부 세계가 합일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실체와 허구가 결합된 공간이 된다.<sup>15)</sup> 복식에서 초공간은 실체와 살상이 결합된 공간, 탈 중심 공간에서 망상의 공간으로 확장된 공간이다. 따라서 그 형은 인체와 초공간 사이의 형질이 복식으로 표출된 것이다.<sup>16)</sup> <표 2><sup>17)</sup>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몸과 복식 그리고 초공간의 관계는 앞에서 보여준 동서양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이다. 즉 실체이면서 정신인 몸과 이를 감싸는 복식이 움직임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변이 공간을 포괄하는 것이 초공간이며 이는 비워진 실체이자 기(氣)로 가득찬 고차원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전개되었던 반면 21세기는 가시적인 실체의 해체를 넘어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거나 실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가 결합된 기능적으로 변화된 복식의 형태가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식에서의 초공간 개념은 21세기 패션에 대한 요구를 제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2.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의 미적 특성

### 1) 비대칭

지속적으로 일정한 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체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인체가 취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동일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sup>18)</sup> 과거 동양의 복식에서는 인체가 반사적으로 취하는 비대칭적인 자세를 반영이라도 한 듯 비대칭적인 구성의 복식으로 인체의 움직임을 수용하였다.<sup>19)</sup> 이러한 동양의 복식은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적인 비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의 움직임과 착용자의 주관적인 착용 방식에 따라 그 형이 결정된다. 동·서양의 차이, 즉 종교적 이념과 철학에 바탕으로 한 미학의 차이가 동·서양의 복식 양식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고, 무(無)에서 출발한 모호함과

<표 2> 몸과 복식에 대한 초공간 개념

대상	내용	도식
몸	- '실체'이면서 '정신'. - '정형'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남. - '시각'과 '움직임'의 상호융합.	
복식	- 몸과 공간 사이의 매개체. - 인체와 함께 움직이는 가변적인 것으로 인식.	
초공간	- 비워진 실체이자 기(氣)로 가득 찬 곳.	

숨음의 사상이 내포된 동양의 미학은 동양의 복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인체를 드러내지 않는 무정형의 비구조적인 형태를 형성한다.<sup>20)</sup>

현재 서구 복식의 3차원적인 면과 비교 할 때 동양의 전통 복식인 한복, 치파오, 기모노, 사리 등의 구성은 예술적 표현의 편평한 캔버스이다. 완성된 의복을 입을 때 신체의 3차원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서구 의복과는 달리 전통적 동양 전통 복식의 평면화 된 형태는 물리적인 인체의 형에서 벗어난 시각에서 출발한 복식의 형을 창출한다. 인체에 무한한 공간성을 부여할 때 복식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움직임이 더욱 자유롭다. 일정한 틀을 완전히 벗어 버린 무한의 공간은 인체와 복식이 합일된 상태로 만들어지며 복식은 인체의 물리적인 대칭성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 2) 비틀림과 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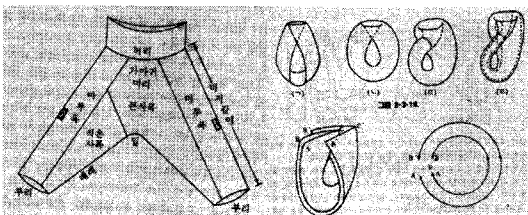
인도의 사리, 일본의 기모노, 한국과 중국의 포와 같이 넓은 면적의 직물을 몸에 두르는 형태로 구성된 동양의 전통 복식은 겹겹이 중첩되면서 '자연의 미'가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흘러내리는 드레이퍼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드러낸다.<sup>21/22)</sup> 특히, 바람의 옷이라고 불리 우는 한복은 울동적인 선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다<sup>23)</sup>. 인체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동양적 사고는 과거 동양의 복식을 구성하는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 자연의 일부인 인체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과거 동양의 복식인 소매와 몸판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인체에 대한 이해에 대해 고복남은 한국의복의 유형과 양식에서

예의와 인체에 대한 의식의 상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소매의 미적 특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4)</sup> 또한 한복 바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큰사폭의 작은 구멍을 통해 상·하로 연결된 큰사폭과 작은 사폭이 들어가 뒤집어지면서 만나는 한복 바지의 구성은 안과 밖의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등장하는 클라인병과 같다. 이러한 구성은 버선의 제작과정에서도 나타나며 이는 붙이기, 뒤집기와 회전을 통해 완성되는 한복의 독특한 제작과정의 묘미라 할 수 있다(그림 2, 3)<sup>25)</sup>. 이러한 비틀림과 꼬임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복식은 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인체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유도한다.

## 3) 탈구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서양은 세계 패션의 중심에 있었으며 복식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에서 서양은 그 중심이 되어왔다. 서양의 이분법적 사유방식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동양과의 문화접면을 거치는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담론을 만들어냈다.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인체의 형을 모방하는 서양의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 인체의 형을 변형하거나 해체하여 새로운 형을 추구하는 탈구조적인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대 패션의 동향은 동양과 서양의 구분 그 자체를 모호하게 하였다.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위치의 경계가 해체된 상태의 모호성을 갖는다. 위치 경계의 해체는 방향의 모호성으로 비정향적인 디자인의 복식에 나타나고 있다. 앞, 뒤, 상, 하, 안, 밖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특



<그림 2> 한복바지의 꼬임



<그림 3> 버선의 꼬임

정한 위치를 칭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모호하다. 입는 방향이 정확하게 지칭되거나 결정되어 있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이 바로 앞, 뒤 등의 특정한 방향에 대해 어떠한 구애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비정향적인 디자인의 복식이다. 이처럼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실체의 변형을 통해 실제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초공간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조형성은 비대칭적인 형, 기존의 형태를 기본으로 틀거나 꼬임의 형태, 인체를 재현한 옷을 완전히 해체시켜 탈구조적인 형으로 표현 될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도 이러한 인체의 형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비틀림이나 꼬임, 대칭성을 무너뜨리는 기법들을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와 재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들을 살펴 볼 수 있다.

#### IV. 현대 패션에 표현된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특성 사례

##### 1. 비대칭

현대 패션에 해체주의에 의한 형의 변형이 주요한 디자인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비대칭적인 형태는 형의 변형과 파괴로 극대화 되면서 더욱 과감하고 다양한 형으로 표출되고 있다. 진태옥은 2005년 자신의 Spring/Summer 컬렉션에서 기하학적인 상의를 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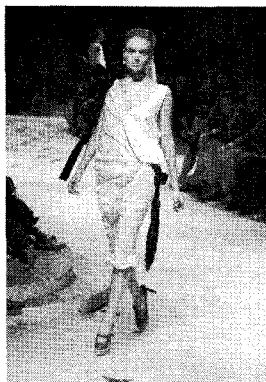
였다. 여러 장의 천을 겹겹이 올린 후 붉은 색의 사각 평면을 나선형으로 절개하여 펼친 듯한 베스트형태의 상의를 만들어냈다(그림 4)<sup>26)</sup>. 이 디자인은 기존의 정형적인 인체의 형을 모방한 것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형을 보여준다. 프라다(Prada)의 2009년 Spring/Summer 컬렉션에는 그동안의 정형적인 미니멀리즘의 실루엣에서 벗어난 몸을 감싸는 비대칭적인 구성이 지배적으로 등장했다(그림 5)<sup>27)</sup>. 지난 11월에 열린 하이퍼스페이스(Hyperspace)전에는 니트와 저지의 유연한 소재 질감을 이용한 무정형의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여졌다(그림 6)<sup>28)</sup>. 이러한 비대칭적인 구성은 한 장의 천으로 에 붙착한 스냅을 연결시킴으로써 형을 잡아 만들어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1991년 작품에서 역시 비대칭적인 형의 창조를 엿볼 수 있다(그림 7)<sup>29)</sup>. 이렇게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형태는 인체를 모방하거나 좌우 대칭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패션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있다.

##### 2. 비틀림과 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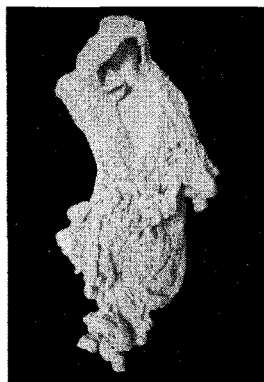
랑방(Lanvin)의 2009 Spring/Summer 컬렉션과 버버리(burberry)의 2010 Spring/Summer 컬렉션에는 꼬임의 형태가 자유롭게 적용된 스커트와 상의 형태가 선보였다(그림 8)<sup>30)</sup>(그림 9)<sup>31)</sup>. 이러한 꼬임의 형태는 기존의 밋밋한 평면의 느낌을 입체적인



〈그림 4〉 진태옥  
2005 S/S



〈그림 5〉 프라다(Prada)  
2009 S/S



〈그림 6〉 하이퍼스페이스  
(Hyperspace) 展



〈그림 7〉 이세이 미야케  
(Issey Miyake)



〈그림 8〉 랑방(Lanvin)  
2009S/S



〈그림 9〉 버버리  
(Burberry)  
2010S/S



〈그림 10〉 The Antwerp  
Royal Academy  
*The Denim skirt* 2009



〈그림 11〉  
유지니오(Uginio)  
2010F/W

형태로 표현되었다. 또한 인체의 곡선에 따른 착장감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다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움직임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2009년 엔트웬 로얄 아카데미(The Antwerp Royal Academy)의 학생들은 기하학적인 구성을 다양하게 활용한 스커트 전시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크리에티브 아이디어가 작품으로 반영되어 소개된 「The Denim skirt」는 초공간의 비유클리트기하학적 특성인 꼬임의 조형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그림 10)<sup>32)</sup>. 학생들의 프로젝트에는 1차원의 선에서부터 3차원의 입체, 그리고 4차원의 시간의 개념으로 움직임이 그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은 고차원의 창의적인 과정으로 이끄는 키워드에 인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정형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sup>33)</sup> 유지니오(Uginio)의 2010 Fall/Winter 작품은 니트의 꼬임으로 된 무정형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착장 방식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는 형을 구현하는 옷은 인체의 움직임과 결합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형을 보여준다(그림 11)<sup>34)</sup>.

이처럼 현대 패션에 표현된 비틀림과 꼬임의 형태는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어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한복에서 사용되었던 꼬임의 구성과 현대 패션에서 나타난 꼬임의 차이를 찾는다면 한복이 걸감과 안감의 두 장의 천을 연결하여 만들

어지는 클라인병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면,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비틀림과 꼬임의 형태는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피비우스 띠를 모방한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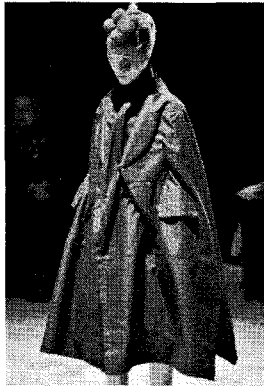
### 3. 탈구조

2008년 Spring/Summer 컬렉션에서 요지 야마모토는 기존의 아이템들의 형을 해체시켰다(그림 12)<sup>35)</sup>. 코메 데 가르손(Comme des Garçons) 2009 Fall/Winter 컬렉션에서도 기존의 아이템들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었다. 소매의 구이나 플라켓의 역할은 기존의 형이나 기능과는 다른 디자인의 발상이 이루어졌다(그림 13)<sup>36)</sup>. 이러한 형의 해체는 모든 아이템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한 가지 아이템의 형의 파괴는 다른 아이템과의 형의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로 이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로 탄생했다. 앤 드물레미스터(Ann Demeulemeester)의 2009 Fall/Winter 컬렉션에서는 해체된 자켓과 코르셋의 디테일이 믹스 앤 매치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의로 표현되었다(그림 14)<sup>37)</sup>. 이처럼 일상복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의 해체 이외에도 기존의 아이템을 이루는 패턴의 구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면 분활을 통해 입체적인 패턴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2004년 La Cambre Mode[s]의 학생작품은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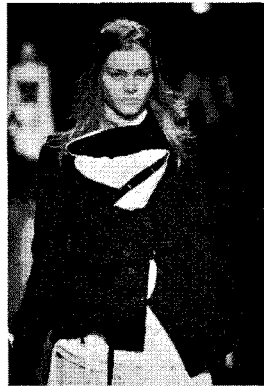




〈그림 12〉 요지 야마모토  
(Yojiyamamoto)  
2008 S/S



〈그림 13〉 꼼메 데 가르손  
(Comme des Garçons)  
2009 F/W



〈그림 14〉 앤 드몰레미스터  
(Ann Demeulemeester)  
2009 F/W



〈그림 15〉 라 캄브레 모드  
(La Cambre Mode[S])  
2004

자켓 패턴에서 벗어난 탈구조적인 형태의 자켓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5)<sup>38)</sup>.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 탈구조적인 형태의 디자인들은 기존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신체 부위에 확장과 축소의 주기적 흐름에서 벗어나 신체 각각의 부위 자체에 대한 파괴, 변형된 형태가 복식에서 표현되고 있다.<sup>39)</sup> 인체의 형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되던 방식과 달리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인체의 형과 무관한 옷들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고 이는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창작물이라는 결과로 표출되고 있다.

## V.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미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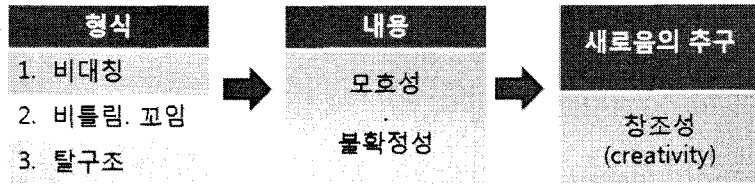
현대에 이르기 까지 서양은 세계 패션의 중심에 있었으며 복식에 대한 대부분의 시각에서 서양은 그 중심이 되어왔다. 서양의 이분법적 사유방식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동양과의 문화접변을 거치는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담론을 만들어냈다. 197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인체의 형을 모방하는 서양의 복식 형태에서 벗어나 인체의 형을 변형하거나 해체하여 새로운 형을 추구하는 탈구조적인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대 패션의 동향은 동양과 서양의 구분 그 자체를 모호하게 하

였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특성은 위치의 경계가 해체된 상태의 모호성을 갖는다. 위치 경계의 해체는 방향의 모호성으로 비정향적인 디자인의 복식에 나타나고 있다. 앞, 뒤, 상, 하, 안, 밖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특정한 위치를 칭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모호하다. 입는 방향이 정확하게 지칭되거나 결정되어 있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이 바로 앞, 뒤 등의 특정한 방향에 대한 구애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비정향적인 디자인의 복식이다. 비정향적인 디자인의 복식은 앞, 뒤, 상, 하, 안, 밖의 위치 경계의 해체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형의 창조로 나타나고 있다.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적 특성은 비대칭성, 비틀림과 꼬임, 탈구조로 표현되고 있었다.

이처럼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적 특성은 실체의 변형을 통해 실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비유클리드기하학의 기법을 패션 디자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출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형의 변형에서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는 기존의 균형을 파괴시킴으로써 비대칭적인 구성으로 자유로운 디자인 전개하거나 이미 인체를 재현한 옷을 완전히 해체시켜 비틀거나 꼬임을 주면서 탈구조적인 형을 만들어 기존의 인체를 재현한 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의 디자인을 창

〈표 3〉 복식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미적 특성



작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형과 무관한 시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인체의 형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비틀림이나 꼬임, 대칭성을 무너뜨리는 기법들을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টে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기존의 형에서 달라진 형의 비틀림은 우리에게 익숙한 형에 대한 반항적인 뒤틀림으로 인한 내부의 에너지의 표출이며 카타르시스이며 이는 곧 새로운 형의 추구인 창조성을 의미한다(표 3)<sup>40)</sup>.

## VI. 결론

초공간(hyperspace, 超空間)의 비유클리드기하학적 특성은 비정향적(非定向的)이고 차원과 차원을 넘나드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자발적인 대칭성의 깨짐에서 비롯된 시각적 조형성은 기존의 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의 탄생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2차원의 면이 3차원으로 다시 4차원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은 비대칭, 비틀림, 꼬임, 탈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복식에서 초공간의 개념 역시 실체와 허구가 결합된 초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 가능하며 지각 가능한 실(實)과 지각하기 어려운 허(虛)의 관계로 구체화 되었다. 몸과 복식 그리고 공간의 관계인 복식에서 초공간성은 복식에 나타난 인체의 비재현성이다. 즉 복식은 인체의 물리적인 형에서 벗어난 추상적 표현의 장이다. 또한 인체와 복식이 만들어내는 공간은 열린형이며 몸(실체)과 정신(상상)이 결합된 무한의 공간이다. 이처럼 복식에서 초공간의 비유클리드적 특성은 실체의 변형을 통해 실체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히스메커니즘 현상의 비유클리드 기법을 디

자인 전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 형의 변형에서 시작하는 경우와 기존의 형과 무관한 시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형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인체의 형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비틀림이나 꼬임, 대칭성을 무너뜨리는 디자인의 발상을 통해 다양한 재료에 적용하여 새로운 형을 만들어낸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존하는 공간의 확장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이에 대한 표현 방식도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과거 동양과 서양의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의 사유방식은 무한한 창의성이 되었다. 패션을 변화 시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옷’이라는 물질의 조형적 변화에 있어서 ‘새로움’으로 전개된다. 현 시점에 복식에서 “초공간” 개념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생활 패턴의 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서양의 형을 중시하는 조형성은 캐주얼적인 현 시대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현대에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반영하면서도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김상일 (1999). 초공간과 한국문화. 서울: 교학연구사, p. 10.
- 2) 덕서너리 레퍼런스 닷컴, 자료검색일 2009.04.19, 자료 출처 <http://dictionary.reference.com/browse/hyperspace>
- 3)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재다움 찾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p. 104.
- 4) 여종현 (2001).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 후설의 현상학적 의식에 대한 노자의 도심적 해석. 서울: 예문서원, p. 91.
- 5) 이윤경 (2009). 복식에 표현된 초공간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
- 6) 위의 책, p. 9.

- 7) 위의 책, p. 13.
- 8) 고석구 (2003). *비유클리드기하학*. 서울: 경문사, p. 181.
- 9) 테라사카 히데다카 (1995). *비유클리드기하학의 세계*. 서울: 전파과학사, p. 63.
- 10) 이윤경. *앞의 책*, p. 18.
- 11) 김태준 외 (1991). *한일문화 교류사*. 서울: 민문고, p. 199.
- 12) J. Dettida (1997). *Limited In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 p. 116.
- 13) 연구자 작성.
- 14) 이윤경. *앞의 책*, p. 73.
- 15) 위의 책, p. 79.
- 16) 위의 책, p. 81.
- 17) 위의 책, p. 78 참고.
- 18) Souriau P. (1983). *The Aesthetics of Movement*.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19) 이윤경. *앞의 책*, p. 92.
- 20) 서봉하 (2007). *종교의 영향 받은 아시아 복식미와 아시안 룩의 조형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1) 이마미치 도모노부 (2005). *동양의 미학*. 서울: 다홍미디어.
- 22) 서봉하. *앞의 책*.
- 23) 김윤희 (2003). *뒤집기와 비틀림 공간의 중첩을 적용한 건축경관 프로젝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4) 고복남 (1987).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서울: 집문당, 1987, p. 31.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2*. 서울: 교문사, p. 32 재인용.
- 25) 김상일 (1999). *초공간과 한국문화*. 서울: 교학연구사.
- 26) JINTEOK (2005). *Beyond Nature*. Seoul: Jintek.
- 27) 프라다(Prada). 2009 Spring/Summer Collections, Milan, 2009 Spring/Summer. *삼성디자인넷*. 검색일: 2009. 6. 1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28) Hyperspace 전시회, KOSCO 갤러리, 연구자 직접 촬영. 촬영일: 2009. 11. 25
- 29)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1991 Spring/Summer Collections, Paris. 1991 Spring/Summer. *삼성디자인넷*. 검색일: 2009. 6. 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0) 랑방(Lanvin). 2009 Spring/Summer Collections, Paris, 2009 Spring/Summer. *스타일닷컴*. 검색일: 2009. 4. 20.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31) 버버리(Burberry). 2010 Spring/summer Collections, England, 2010 Spring/summer. *버버리닷컴*. 검색일: 2010. 2. 1. 자료출처 <http://www.Burberry.com>.
- 32) 2009 「The Denim skirt」 전시작품. *삼성디자인넷*. 검색일: 2009. 6. 15.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3) 이윤경. *앞의 책*, p. 98.
- 34) 유지니오(UginiO). *서울패션위크*. 서울, 2010 Fall/Winter. *유지니오닷컴*. 검색일: 2010. 1. 30. 자료출처 <http://www.uginio.com>
- 35) 요지 야마모토(Yojiyamamoto). 2008 Spring/Summer Collections, Paris, 2008 Spring/Summer. 검색일: 2009. 6. 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6) 폼메 데 가르손(Comme des Garçons). 2009 Fall/Winter Collections, Paris, 2009 Fall/Winter. *삼성디자인넷*. 검색일: 2009. 6. 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7) 앤 드메를레미스터(Ann Demeulemeester). 2009 Fall/Winter Collections, Paris, 2009 Fall/Winter. *삼성디자인넷*. 검색일: 2009.06.20.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38) Tony. D. (2006). *LA CAMBRE MODE[S] 1986-2006*. Brussels, French: La Cambre in Brussels.
- 39) 이윤경. *앞의 책*, p. 101.
- 40) 연구자 작성.